

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해운산업의 내일을 잇다

한국해운조합 | 위험성평가 컨설팅

글 기시윤 사진 김민정

힘차게 올린 댕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이 실려 있다.
한국해운조합은 푸른 바다 위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내일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,
안전보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해운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.
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,
한국해운조합은 컨설팅을 토대로 조합의 소임을 다한다는 다짐이다.





**사람 중심의 일터,
안전을 담다,
미래를 열다!**

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 및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949년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. 지난 70여 년간 해운업계 경영 지원 서비스, 글로벌 해상보험 체계 구축,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해운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. 현재 2,300여 개의 해운사를 조합원사로 두고 있으며,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통해 조합원사와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. 해운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, 이 모든 활동은 안전보건 경영을 전제로 이뤄진다.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유해, 위험에 대한 노출이 잦을 수밖에 없으며 잠깐의 방심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

특히 지난 2022년은 안전보건 부문에서 기념비적 한 해였다. 임병규 이사장의 강한 의지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새롭게 선포됐으며, ‘안전을 담다, 미래를 열다’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. 또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에 혼란을 겪을 조합원사를 위해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으며, 같은 해 6월에는 전담 조직인 안전보건팀도 신설했다.

더욱 안전한
일터를 위해,
**안전보건 전담
조직 출범**

안전보건팀은 사업장 내 산재대 있던 안전보건 지침을 통합하고, 새롭게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추진과제 및 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된 업무다. 신설 조직인 데다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로서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.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캐치프레이즈 또한 조합 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있는데요. 이 관심이 기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게 관건이죠.”

부담감이 적지는 않지만,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신은재 팀장.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한 것도 보다 견고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이었다. 가시적 성과는 바로 나타났다. 그동안 고객응대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건 지침은 소홀한 편이었는데, 컨설팅 이후 ‘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보호조치’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. 현재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폭언 예방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및 전화 녹음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용객의 비이성적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부여 및 피해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료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.

“
노동자가 안전한 일터,
국민이 행복한 사업장 한국해운조합을
만들어가겠습니다.

신은재 팀장

“
대한산업보건협회
컨설팅이 안전관리체계구축에
큰 도움을 주었습니다. 앞으로 안전관리체계
우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

오준상 주임



**안전보건 체계구축에
큰 힘을 실어준
위험성평가
컨설팅**

“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안전보건 활동의 핵심일 텐데요. 조합 인력만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. 또 외부 시선이 눈에 띄지 않은 유해위험요인도 잘 찾아내는 법이죠.”

안전보건팀 오준상 주임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. 협회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한국해운조합 본부 및 전국 10개 지부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 가까이 실시됐다. 물리적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노동자의 질병 유형 및 직무스트레스도 분석했다. 그야말로 전방위적 컨설팅으로, 한국해운조합은 컨설팅을 토대로 안전보건 지침 6종, 가이드 2종, 서식 4종 등을 수립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.

안전보건팀 신은재 팀장과 오준상 주임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덕분에 한국해운조합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. 앞으로도 안전 및 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조합의 방침에 따라,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다짐이다. 🐦

한눈에 보는 위험성평가 컨설팅



컨설팅 대상 : 한국해운조합 위험성평가 대상 터미널 및 사업장

컨설팅 기간 : 2022. 6. 22 ~ 9. 4

컨설팅 내용 : 유해-위험요인 관련 업무처리 절차 자문, 위험성평가 체계진단 및 자문

Before & After



유해-위험요인
- 저수조 청소 및 정화조 위탁 작업
- (6개월 1회) 추락 및 산소결핍 위험

실행 내용
- 밀폐공간 경고 표지 부착
- 밀폐공간 작업수칙 및 절차 준수



유해-위험요인
- 1층 대합실 에스컬레이터
하부 이동 시 머리 충돌위험

실행 내용
- 충돌주의 경고 표지 부착
- 충돌방지 매트 부착

컨설팅 기대효과

- '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보호조치' 시행
- 안전보건 지침 6종, 가이드 2종, 서식 4종 등 배포